

“ 진심을 담아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베이에서 영어전문학원 탑플러스를 운영중인 Sean Yang 원장입니다.

먼저 박상운 회장님, 봉현준 부회장님을 비롯한 상해한국상회 구성원

그리고 전세기 운항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한 번씩 안아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9월 3일 엔타이로 들어와 격리를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입국 교민들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음을 상하이에 도착해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덕에 3차 전세기를 통해 제 가족들도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입국 대기자들은 위챗 정보방을 통해 공유해주시는 필요 정보에 의지하며 입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봉사자들의 봉사를 당연시 하고

전세기 탑승을 당연한 권리인양 착각하는 이들로 인해 화도 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자들을 더 응원하고 모든 욕구, 행동들이 통제된 채

14일간 한 곳에서 격리된 한 명, 한 명에게도 불편함 없이 챙기시려 하시는 모습에 크나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그 어떤 것 보다 소중하고 값진 도움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교민 커뮤니티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를 자원했더군요.

저 역시도 감사한 마음이 누구보다 크기에 이번 한국상회 직원 모든 분들과 봉사단원 모든 분들께 부족하나마 국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자 합니다.

약소하지만 저희 가족의 조그마한 성의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상해한국상회 사무국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명단을 상하이저널에 알려주시면

홍첸루 '아지매 국밥' 사장님께 전달 하겠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전후해 편한 시간에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소박한 국밥이지만 제 작은 성의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긴 해외 생활 중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운 상하이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도 상하이 한인사회에 봉사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Special thanks to 봉현준 부회장님



Sean Yang 올림